

2011년 7월 6일 밤, 우리 온 국민은 하얗게 밤잠을 설쳤다. 남아공 더반에서 IOC 위원장이 하얀 백지를 쳐드는 순간, "평창 PYENGCHANG"! 숨이 멎을 듯한 기막힌 찰나의 감격, 그 감격으로 대한민국은 온통 불야성을 이뤘다.

12년 동안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2전 3기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국민들의 성원과 우리 강원 도민들의 강인한 정신력, 추진위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한 노고까지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다.

두 번이나 패하여 실망도 컸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2배가 넘는 찬성표를 얻기까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준비의 기간이 필요 했던 것 같다. 이제 온 세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리며 땀 흘리고 노력한 값진 결실이다.

삼수 끝에 대학 입학한 제자

이야기를 돌려 어려움을 극복한 어느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해 이맘 때 즈음의 일이다.

어느 날 십 여 년 전 담임했던 제자가 찾아왔다. 청년이 된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 대학 진학이 뜻대로 안 되어 3수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 차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든 문집에 실린 자신의 일기를 읽게 되었다. 거기 이렇게 실려 있었다. "나는 이답에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 꿈을 이루려면 남보다 부지런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본 후 아이는 문득 그 때의 담임선생님이었던 내가 생각나 찾아 왔다고 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때 발표도 잘하고 항상 표정이 밝은 아이였다. 그 날 퇴근 시간이 되어 학교 가까운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서 냉면과 고기를 시켜 주며 이런 저런 아이의 고민을 들어 주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고 싶은 대학과 그 학과에 왜 진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격려의 말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 아이의 고통이 인생의

양약이 되어 기쁨의 웃음을 웃을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그 해 연말이 되어 아이는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보내왔다. 그리고 금년 스승의 날, 말끔한 모습으로 찾아와 재수, 삼수를 하다 보니 나이가 차서 1학기를 마치고 군에 가기로 지원했다며 내게 환한 웃음을 선물하였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승자다. 때로는 쓰디 쓴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강인하게 만드는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신화를 들으며 감동할 때가 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초등학교 과정의 학력으로 발명 명장이 된 분의 강연을 들으며 크게 감동을 받았다. 실패를 할 때 마다 마음을 다지며 동전 한 개씩을 빈 통에

넣었는데 처음엔 '땡그랑' 소리가 나고, 중도엔 '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는 동전이 차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 하였다. 그 같은 빈 통을 몇 개나 채운 후에야 발명 명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세계의 과학자 에디슨도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인류에 공헌한 전구를 발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긍정의 힘으로

너무 쉽게 얻으면 쉽게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살다보면 진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일이든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좌절하고 낙심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같이 어려운 일을 잘 넘기려면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훈련과정이라 생각하고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 방법을 찾아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의 문은 열린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은 시간이 지난 후, 더 큰 기쁨의 날개를 달고 찾아오리라.

황연옥 칼럼

시인, 교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 실감



신기창
속초기상대 대장

특별기고

태풍의 두 얼굴

얼마 전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를 통과해 북한 신의주 부근으로 상륙하며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다. 비록 우리가 사는 영동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일부지역에서는 침수의 피해도 있었다.

과거 10여년의 자연재해 현황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인명과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큰 재해의 원인으로 태풍을 들 수 있다. 이 태풍은 많은 비와 강풍, 해안에서는 해일 등의 복합적 현상을 동반한다.

유엔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는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이 과거보다 더 대형화되고, 강도도 강해져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태풍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 지구의 에너지평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적도 부근지역에는 강한 일사로 인해 많은 열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태풍은 이 열에너지를 추운 극지방으로 수송하여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수송현상이 없다면 열대 및 아열대지역은 계속 더워지고, 극지방은 기온이 지금보다 더욱 추운지역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태풍은 해양의 많은 물을 대륙으로 공급하는 역

할도 하고 있다. 태풍이 없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심한 물 부족현상을 겪을지도 모른다. 또 태풍은 비닷물의 순환을 촉진하며 적조현상을 방지하고 해양의 자정작용 등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태풍은 과다하게 내리는 비와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태풍이 복잡하게 되면 예상되는 진로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에 드는 지역에서는사

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기상청에서는 태풍 예보를 5일까지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첨단화된 많은 장비들과 예보능력 향상으로 예보의 정확도와 서비스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경우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재해에 대비하는 국민들의 자세의 변화와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독자투고 / 화재와의 전쟁을 돌아보며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소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근 3년 평균 사망자를 전년도 대비 35%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거기에 부응하여 속초소방서에서는 2010년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1년에도 지역 내에서의 화재발생뿐 아니라, 정책목표인 인

명피해 저감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대책으로는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유관 기관 등의 지원협조를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배부, 의용소방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지정해 화재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및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해 다중이용업주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을 제고하고 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자율가입을 최대한 유도하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비상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의 일환으로 소방통로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며 소방장비 첨단화 및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속초소방서 자체 T/F팀을 연중 가동하여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4월 화재진압 테스트장을 완공하여 실제 화재현장에 가까운 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최근 일본대지진에서 보았듯이 일본국민들의 침착성과

냉정함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그러한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진 결과다.

우리 모두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경오
속초소방서 소방위